

연인관계에서의 집착과 반추적 반응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Limerence and Ruminative Response on Dating Violence in Romantic Relationship

정구철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Goo-Churl Jeong(gcjeong@syu.ac.kr)

요약

본 연구에서는 연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데이트 폭력과 집착행동 및 반추적 반응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연애 경험이 있는 대학생 205명이며, 평균 연령은 22.1세였다. 분석 방법은 상관관계분석, 분산분석, 2단계군집분석,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이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착 피해군과 가·피해군은 일반군보다 자책적 반추 반응이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데이트 폭력 피해군과 가·피해군은 일반군보다 모든 반추적 반응의 하위요인이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자책적 반추 반응은 데이트 폭력에 유의한 정적 설명변수로 나타났다. 넷째, 집착 피해경험은 데이트 폭력의 피해집단으로 분류될 승산비를 유의하게 3.3배 높였고, 데이트 폭력 가·피해군으로 분류될 확률은 10.9배나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집착과 반추사고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집착 | 반추적 반응 | 자책 | 데이트 폭력 |

Abstract

The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dating violence and limerence and ruminative response in romantic relationship. The subjects were 205 college students who had experience of dating. And mean age of subjects was 22.1 years. Analysis methods were correlation analysis, ANOVA, two-step cluster analysis,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elf-reproach ruminative response were significantly higher the victim group and perpetrator · victim group than the general group. Second, all sub-factors of ruminative response were significantly higher the victim group and perpetrator · victim group than the general group. Third, the self-reproach ruminative response was significant positive explanatory variable on dating violence. Fifth, the victim limerence experienc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odds ratio of victim group of dating violence by 3.3 times, and that of perpetrator · victim group of dating violence by 10.9 times. Based on these findings, he discussed the importance of dating violence and the importance of limerence and rumination.

■ keyword : | Limerence | Ruminative Response | Self-reproach | Dating Violence |

* 이 논문은 2016년 삼육대학교 건강과학 특성화 사업 추진 연구비에 의해 씌여짐.

접수일자 : 2017년 10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7년 11월 08일

수정일자 : 2017년 10월 31일

교신저자 : 정구철, e-mail : gcjeong@sy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살인범죄자 10명 중 1명은 애인을 살해하고 있다.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살인범죄자 857명 중 102명이 피살자와 연인 관계인 것으로 나타나, 살인범죄의 11.9%가 데이트 폭력에 의해 발생하고 있었다[1]. 데이트 폭력은 최근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뉴스가 끊임없이 보도되면서, 이제는 연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한 취업포털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97%가 데이트 폭력은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과 관련해서는 91.6%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하였다[2]. 이처럼 데이트 폭력은 이미 우리 사회의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고 심각성도 인지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숙지한 사람은 많지 않다. 상기 조사에서도 데이트 폭행 상황에 대해 38%는 '헤어졌다'고 응답했지만, '어떠한 대응도 못했다'(15.7%)거나 '그냥 넘어갔다'(11.1%)고 응답한 비율도 높아[2], 보다 적절한 대처 교육이 필요한 것을 시사하였다.

데이트 폭력은 미혼의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으로, 약한 위협에서부터 성폭력과 살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가정폭력 경험이나 폭력에 대한 노출과 같은 환경적 요인[3-5], 경계선적 성격, 내현적 자기에, 분노조절 등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들이 주로 지목되고 있다[6-8]. 그러나 여성의 경우, 데이트 폭력을 사용하는 여성의 상당수가 자기방어를 위해 데이트 폭력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9], 이는 연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혹은 정서적 피해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연인관계에서 자기방어를 유발하는 현재의 직접적인 자극이 데이트 폭력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촉발하는 보다 직접적인 자극에 초점을 두고 예측변인을 탐색하였으며, 이에 대해 연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집착적인 행동에 주

목하였다. 집착이란 연인에게 강하게 몰두하는 현상으로, 연인으로부터의 사랑이 단절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 불안해하면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의미한다[10]. 이러한 집착행동은 전화나 문자를 수시로 확인하려는 행동부터,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고, 연락이 단절되면 매우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등 연인 관계의 불안과 과민한 반응을 특징으로 한다. 집착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현상들이지만, 상호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적절한 사생활을 인정해 주면서 건강한 연인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지만,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연인들에게서는 과도한 간섭과 개입이 발생하게 되면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다. 김은희(2006)는 집착에 대해 인지적인 면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집착을 "현재성과 유연성, 초연성이 결여된 심리상태"라고 정의하면서 당면한 상황에 대한 직시성의 결여와 융통성 있는 사고의 부족 및 편협한 사고나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11]. 이러한 집착은 연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다양한 대상에게 보이는 편집증적인 경향이나, 연인관계가 아닌 대상에게 나타나는 스토킹 등과 구별된다. 집착은 개인의 고유한 특성보다는 친밀한 관계인 연인이라는 상황특수적인 맥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관계중심의 상황특수성이 집착의 한 특징이기도 하다.

국내에서 집착에 대한 개념을 구성하기 위해 시도한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인 성인은 집착을 "파트너를 소유물로 여기고 파트너를 통제하고 간섭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4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파트너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애정"이라는 응답이 24.1%로 뒤를 이었다[10]. 이처럼 성인들은 집착행위를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행동 특성으로 보고 있고, 심리적으로는 과도한 관심과 애정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성인들에게 파트너에게 집착했던 이유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파트너가 떠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10], 집착이 연인관계의 불안에 근거한 행동특성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인관계에서 이러한 집착행동이

나타날 경우 데이트 폭력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집착 성향과 데이트 폭력의 가해 및 피해 경험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집착 성향은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여학생의 경우 데이트 폭력 피해경험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12][13]. 이러한 점에서 연인이 보여주는 집착적인 행동은 언어적 혹은 신체적 데이트 폭력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집착과 관련해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성으로부터 집착적 행동의 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오히려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로 오인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집착은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하려 하고, 집요하게 사생활을 확인하려고 하며,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행위를 가한다. 집착행위의 피해자는 이러한 가학적인 집착 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 언어적 데이트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집착 행동은 집착의 피해자를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로 변질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집착과 데이트 폭력은 매우 복잡한 관계에 놓여 있으며, 가해와 피해의 순환적 관계가 발생할 수 있어 대처가 어렵다.

데이트 폭력의 가해와 피해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피해경험과 가해경험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서경현(2008)은 데이트 폭력의 가해와 피해가 모두 나타나는 피해자를 공격적 피해자로 분류하여, 데이트 폭력의 피해만 당하는 순수한 피해자와 구분하여 연구하기도 하였다[14]. 데이트 폭력의 가해와 피해가 모두 나타나는 공격적 피해자는 순수한 피해자보다 데이트 언어적 폭력이나 신체적 폭력 등 전반적으로 폭력의 피해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 폭력의 경우에도 순수한 피해자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15], 방어적 데이트 폭력의 경향도 보이고 있었다. 그러므로 데이트 폭력의 가해 경험은 피해경험과 서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고 데이트 폭력의 가해 및 피해 경험을 모두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는 집착행위의 가해 및 피해 경험에도 확장하여 고려할 수 있으므로 집착행위도 가해 및 피해 경험을 동시에 고려

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렇듯 집착과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경험하고 나면 당사자는 자신의 현재의 상황과 사건 경험에 대해 반추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반추란 자신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객관적인 일이지만, 실제 선행연구들에서는 우울이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고로 정의하여 연구되고 있다[16]. 반추적 반응이 자책적이거나 숙고적, 혹은 우울하게 지속될 경우 사건에 대한 부정적 정서나 침습적 사고가 유지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연인관계에서 집착 피해를 경험했을 때, 이에 대해 '내가 의심할만한 행동을 했다'고 자책하는 반추 사고는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착적 행동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받게 되므로 집착과 폭력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인관계에서 의심하거나 통제하려는 경향에 대해 자책적인 반추사고나 지나친 숙고, 우울한 반추사고는 오히려 연인관계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장시온(2014)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선행연구에서 관계증득이 데이트 폭력의 가해 및 피해경험을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타인용서가 데이트 폭력의 가해 및 피해에 모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폭력에 대한 정당화나 자책적 사고는 데이트 폭력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17]. 앞서 집착에 대한 인지적 정의가 현재성, 유연성, 초연성이 결여된 상태라는 점에서 집착 가해자는 경직된 인지적 양식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11], 이러한 가해자에게 자책적이고 우울한 반추사고를 통한 면죄부의 배포는 집착행위와 방어적 폭력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경직된 인지적 사고 양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경우 문제에 대한 반추사고가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집착의 피해자에게 반추사고는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경직된 인지적 틀 안에서 집착에 대한 반추적 사고가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자책적 형태가 될 경우 데이트 폭력의 피해 경험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의 가해와 피해

경험을 모두 고려하여 데이트 폭력의 집단을 분류하고, 직접적인 자극원인 연인 간의 집착행위와 이에 대한 반추사고가 데이트 폭력의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부적절한 집착행위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안하고, 건강한 연인관계의 개입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연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집착과 반추적 반응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착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둘째, 집착과 데이트 폭력의 유형을 분류한다.

셋째, 집착과 데이트 폭력의 유형에 따른 반추적 반응의 차이를 분석한다.

넷째, 집착과 반추적 반응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자료 수집을 위해 서울에 소재한 대학교의 대학생 230명을 대상으로 지필형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라 연애의 경험이 있어야 하므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연애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거나 3개월 이내의 짧은 연애경험만 있을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설문지 회수 후 무응답이 많거나, 연애기간에 부정확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거하고, 총 205부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남성이 93명(45.4%), 여성이 112명(54.6%)이었고, 평균 연령은 22.1세(SD= 2.1)였다. 종교의 경우 있는 사람이 90명(43.9%), 없는 경우가 115명(56.1%)이었다. 현재 연애중인 경우가 124명(60.5%)이었고, 장기적 연애경험이 1회인 경우가 115명(56.1%)으로 가장 많았고, 2회 60명(29.3%), 3회 이상인 경우는 30명(14.7%)이었다. 연구 대상자가 설문지 응답을 위해

고려하고 있는 현재 연애중이거나 과거 가장 강렬했던 연애 대상자와의 평균 연애기간은 17.4개월(SD=14.9)이었다.

설문조사는 3명의 연구보조원에게 설문조사의 방법과 윤리적 고지에 대한 사전 교육을 수행한 후, 연구보조원들이 대학 내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조사를 하였다. 연구보조원들은 설문 조사 시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응답된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설문지 작성을 시작했더라도 중도에 언제든 설문지 응답을 포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사람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응답시간은 개인차가 있으나 설문지 응답에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고, 설문 응답자에게는 보상으로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모든 설문은 신상정보가 누적되지 않는 무기명으로 조사되었으나, 데이트 폭력 하위 요인 중 성적 폭력과 같은 민감한 질문이 있고, 피해자의 폭행 피해경험에 대한 회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정서경험을 최소화하면서 연구를 윤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IRB No.2-1040781-AB-N-01-2016103HR).

2. 연구 도구

2.1 집착행동

연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집착행동은 우아미, 박준성, 정태연(2008)이 개발한 집착행동 척도를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10]. 집착행동은 연인관계에 대한 불안을 기저로 하여 ‘나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받고자 한다,’ ‘내가 떠날까봐 불안해한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문자와 전화로 수시로 확인한다’와 같이 연인 간 불안정한 관계를 측정하고 있다. 선행연구의 구성타당도 검증 결과에 따르면, 총 5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각 의심, 거부 두려움, 질투심, 외로움/불완전감, 과민성으로 명명되었고,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집착 행동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각 요인별 .78~.91이었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8이었고[10],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도 집착 가해경험은 .94, 집착 피해경험은 .9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2 반추적 반응

반추적 반응 척도는 김소정, 김지혜, 윤세창(2010)이 타당화한 한국판 반추적 반응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16]. 반추사고는 자신에게 발생된 일을 반복적으로 되생각하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생각을 자책적으로 혹은 우울한 방향으로, 또는 깊이 있게 되짚어 보는 방향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고 행위는 원인을 탐색하고 성장하기 위한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경직된 인지적 틀을 가진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를 가중시킬 수도 있다. 반추적 반응 척도는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으로는 자책('내가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런 일을 당할까?'하고 생각한다'), 숙고('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글로 쓰고 분석해 본다'), 우울('내가 얼마나 슬픈지에 대해 생각한다') 반추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1점 '전혀 아니다'에서 4점 '거의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건에 대한 자책적, 숙고적, 우울적 반추 사고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84이었다.

2.3 데이트 폭력

연인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와 피해를 측정하기 위해 Straus, Hamby, Boney-McCoy 및 Sugarman(1996)의 갈등척략척도(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를 가해와 피해를 측정할 수 있도록 재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18][19]. 본 척도는 연인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연인이 자신에게 사용했던 갈등 척략과 자신이 연인에게 사용했던 갈등 척략을 측정하는 것으로 각각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으로는 가해와 피해 경험의 언어적 폭력('욕을 한 적이 있다'), 신체적 폭력('뺨을 때린 적이 있다'), 성적 폭력('성 행동을 하기 위해 잡거나 누르는 등 완력을 사용한 적이 있다')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1점 '없다', 2점 '가끔', 3점 '종종', 4점 '자주', 5점 '거의 매일'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의 가해 및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가해경험은 .76, 피해경험은 .79이었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행된 통계분석은 IBM사의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과 주요 연구 변인들의 백분율과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하였고, 집단의 분류는 위계적 군집분석과 K-평균 군집분석을 사용하였다. 집단별 연구 변수의 차이는 분산분석(ANOVA)후 Duncan의 사후검정을 수행하였다. 데이트 폭력 유형에 대한 예측변인의 탐색은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모든 통계적 검증의 유의확률은 .05수준에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착, 데이트 폭력 및 반추적 반응의 차이

집착 행동과 데이트 폭력 및 반추적 반응의 왜도의 범위는 .35~1.54였고, 첨도는 -1.07~2.42로 나타나 주요 연구 변수들의 정규성을 가정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착 행동과 데이트 폭력 및 반추적 반응의 차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라 데이트 폭력 피해($t=-2.92, p<.01$)와 가해($t=3.08, p<.01$) 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그 외에 연령이나 종교유무, 연애 경험 및 현재 연애 상태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집착과 데이트 폭력 간의 상관관계

집착 행동의 가해 및 피해경험과 데이트 폭력의 가해 및 피해경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집착 가해경험과 피해경험, 데이트 폭력의 가해 및 피해경험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

다. 특히 집착 가해경험은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의 하위요인 중 언어적 폭력($r=.24, p<.001$) 및 성적 폭력($r=.24,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집

착 피해경험은 데이트 폭력 피해경험의 언어적($r=.33, p<.001$), 신체적($r=.17, p<.001$) 및 성적 폭력($r=.16,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착, 데이트 폭력, 반추적 반응의 차이 (N=205)

변인	집착 가해		집착 피해		데이트 폭력 가해		데이트 폭력 피해		반추적 반응	
	M(SD)	t	M(SD)	t	M(SD)	t	M(SD)	t	M(SD)	t
성별										
남성	78.72(20.42)	.15	87.09(28.37)	1.12	27.71(4.28)	-2.92**	28.83(5.24)	3.08**	31.22(11.33)	-.67
여성	78.27(22.75)		82.71(27.62)		29.66(5.15)		26.73(4.52)		32.34(12.41)	
연령										
24세 이하	78.26(22.09)	-.39	84.98(27.89)	.41	28.59(4.75)	-1.56	27.57(4.80)	-.90	31.57(11.96)	-.91
25세 이상	80.13(18.38)		82.41(29.18)		30.26(5.59)		28.57(6.15)		33.96(11.58)	
종교										
유	77.09(20.77)	-1.03	84.72(27.61)	.01	28.44(4.87)	-1.10	27.33(5.03)	-1.15	32.07(12.04)	.32
무	80.24(22.78)		84.66(28.59)		29.20(4.85)		28.13(4.86)		31.53(11.82)	
연애 경험										
1회	79.35(23.01)	.65	85.69(28.41)	.57	28.68(4.81)	-.30	28.08(5.32)	1.29	32.06(12.04)	.31
2회 이상	77.35(19.91)		83.43(27.52)		28.89(4.95)		27.18(4.44)		31.54(11.82)	
현재 연애 상태										
연애 중	79.28(20.00)	.66	84.04(26.65)	-.42	28.85(4.63)	.28	27.03(4.32)	-2.24	31.07(11.62)	-1.13
연애 종료	77.23(24.10)		85.70(30.04)		28.66(5.23)		28.69(5.69)		33.00(12.34)	
전체	78.47(21.67)		84.70(27.98)		28.77(4.86)		27.68(4.96)		31.83(11.92)	

**p<.01.

표 2. 집착과 데이트 폭력 간의 상관관계 (N=205)

변인	(1)	(1-1)	(1-2)	(1-3)	(1-4)	(1-5)	(2)	(2-1)	(2-2)	(2-3)	(2-4)	(2-5)	(3)	(3-1)	(3-2)	(3-3)	(4)	(4-1)	(4-2)
(1)집착 가해																			
(1-1)의심	.86***																		
(1-2)거부	.78***	.62***																	
(1-3)질투	.86***	.68***	.60***																
(1-4)외로움	.72***	.50***	.36***	.52***															
(1-5)과민	.86***	.60***	.61***	.70***	.66***														
(2)집착 피해	.36***	.33***	.30***	.30***	.22**	.32***													
(2-1)의심	.36***	.37***	.34***	.28***	.16*	.27***	.93***												
(2-2)거부	.24***	.25***	.33***	.15*	.05	.15*	.85***	.78***											
(2-3)질투	.36***	.28***	.29***	.35***	.19**	.37***	.87***	.79***	.65***										
(2-4)외로움	.25***	.21**	.03	.21**	.38***	.25***	.66***	.47***	.41***	.46***									
(2-5)과민	.29***	.25***	.18**	.25***	.22***	.30***	.89***	.75***	.66***	.74***	.64***								
(3)데이트 폭력 가해	.26***	.29***	.30***	.34***	-.03	.11	.27***	.32***	.28***	.21**	.07	.18**							
(3-1)언어	.24***	.27***	.29***	.31***	-.05	.10	.27***	.33***	.27***	.21**	.06	.18**	.97***						
(3-2)신체	.14	.17*	.13	.20***	.01	.02	.13	.14*	.14	.13	.06	.07	.60***	.41***					
(3-3)성	.24***	.20**	.24***	.20***	.12	.22**	.10	.11	.14*	.06	-.04	.11	.23**	.14*	.09				
(4)데이트 폭력 피해	.24***	.31***	.26***	.15*	.08	.12	.33***	.39***	.33***	.29***	.02	.27***	.60***	.59***	.24***	.36***			
(4-1)언어	.24***	.31***	.26***	.16*	.08	.12	.33***	.39***	.33***	.28***	.04	.25***	.60***	.62***	.17*	.25***	.97***		
(4-2)신체	.14*	.15*	.16*	.10	.06	.07	.17*	.19**	.12	.20**	-.04	.17*	.34***	.23**	.39***	.49***	.64***	.46***	
(4-3)성	.04	.06	.08	-.02	-.02	.04	.16*	.16*	.19**	.11	-.01	.18**	.16*	.11	.12	.38***	.33***	.18*	.27***

*p<.05, **p<.01, ***p<.001.

3. 집착행동과 데이트 폭력의 군집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집착행동과 데이트 폭력을 가해와 피해의 2가지 경험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가·피해 경험은 각 개인에게 중복하여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이 반영되도록 집착행동과 데이트 폭력 변수를 가해 및 피해점수를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집단의 분류는 2단계 군집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2단계 군집분석은 먼저 위계적 군집분석을 통해 초기중심점(initial seed points)을 산출한 후, 두 번째 단계로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1단계에서 산출한 초기중심점과 집단 수를 입력하여 최종적으로 군집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군집분석을 위한 기준변수로는 집착행동은 집착 가해 및 피해경험 점수를 사용하였고, 데이트 폭력의 경우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과 피해경험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변수의 점수는 표준화하여 투입하였다. 먼저 1단계인 위계적 군집분석을 위해 표준화된 기준변수들을 투입한 후, 군집방법은 'Ward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개체간 거리는 '제곱 유클리드 거리'를 지정하였다. 군집의 수는 선행연구와 2개의 기준 변수를 사용한다는 가정에 따라 논리적 근거로 4개 군집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군집분석 후 산출된 최종 군집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석가능성을 고려했을 때도 4개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계적 군집분석을 통해 산출된 초기중심점 값을 바탕으로 2단계인 K-평균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집착행동에 대한 K-평균 군집분석 결과의 최종 중심점을 [표 3]에 제시하였다. 최종 중심점을 근거로 군집을 명명한 결과, 집단따돌림 가해경험만 상대적으로 높은 '가해군' 집단(군집1), 피해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피해군' 집단(군집2), 가해와 피해경험이 모두 높은 '가·피해군' 집단(군집3)과 가해와 피해경험이 모두 낮은 '일반군' 집단(군집4)으로 분류하였다. 가해군으로 분류된 사례 수는 69명(33.7%)이었고, 피해군은 28명(13.7%), 가·피해군은 28명(13.75%), 일반군은 80명(39.0%)이었으며, 집단 간 가해(F=212.53, p<.001) 및 피해경험(F=141.49, p<.001)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3. 집착 유형의 최종 군집 중심점

구분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F(p)
	(가해군)	(피해군)	(가·피해군)	(일반군)	
가해경험	.43	-.49	1.73	-.80	212.53(<.001)
피해경험	-.19	1.39	1.18	-.73	141.49(<.001)
n(%)	69(33.7)	28(13.7)	28(13.7)	80(39.0)	

데이트 폭력에 대한 K-평균 군집분석 결과의 최종 중심점을 [표 4]에 제시하였다. 최종 중심점을 기준으로 군집을 명명한 결과,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만 상대적으로 높은 '가해군' 집단(군집1), 피해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피해군' 집단(군집2), 가해와 피해경험이 모두 높은 '가·피해군' 집단(군집3)과 가해와 피해경험이 모두 낮은 '일반군' 집단(군집4)으로 분류하였다. 가해군으로 분류된 사례 수는 19명(9.3%)이었고, 피해군은 83명(40.5%), 가·피해군은 23명(11.2%), 일반군은 80명(39.0%)이었으며, 집단 간 가해(F=200.26, p<.001) 및 피해경험(F=219.66, p<.001)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4. 데이트 폭력 유형의 최종 군집 중심점

구분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F(p)
	(가해군)	(피해군)	(가·피해군)	(일반군)	
가해경험	1.62	.06	1.41	-.85	200.26(<.001)
피해경험	-.13	.10	2.23	-.71	219.66(<.001)
n(%)	19(9.3)	83(40.5)	23(11.2)	80(39.0)	

4. 집착과 데이트 폭력 유형에 따른 반추적 반응의 차이

집착과 데이트 폭력 유형에 따른 반추적 반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5], 집착 피해군과 가·피해군이 일반군에 비해 유의하게 자책적 반추사고가 높았다(F=2.69, p<.05). 데이트 폭력의 경우 일반군에 비해 가해, 피해 및 가·피해군이 유의하게 자책적 반추사고가 높았고(F=11.37, p<.001), 피해군과 가·피해군이 일반군보다 반추적 반응의 숙고(F=6.86, p<.001)와 우울(F=5.42, p<.01)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표 5. 집착과 데이트 폭력 유형에 따른 반추적 반응의 차이

변수	자책		속고		우울	
	M(SD)	F	M(SD)	F	M(SD)	F
집착						
가해군 ^a	8.65(4.06)	2.69*	11.22(4.98)	.34	11.43(4.68)	2.00
피해군 ^b	9.57(3.51)	bc/d	11.78(4.59)		12.93(5.71)	
가피해군 ^c	9.77(3.85)		11.79(3.87)		13.57(5.17)	
일반군 ^d	7.88(3.15)		10.96(4.59)		11.44(4.47)	
데이트 폭력						
가해군 ^a	8.89(3.68)	11.37***	11.00(4.74)	6.86***	11.42(4.68)	5.42**
피해군 ^b	9.66(3.69)	abc/d	12.64(4.39)	bc/d	13.02(4.72)	bc/d
가피해군 ^c	10.52(3.72)		12.35(4.14)		13.70(5.40)	
일반군 ^d	6.95(2.94)		9.61(4.48)		10.41(4.48)	

주. 알파벳은 분산분석 후 사후검증 결과임.
*p<.05, **p<.01, ***p<.001.

5. 집착 유형과 반추적 반응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데이트 폭력 유형에 대한 집착 유형과 반추적 반응의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절편만 있는 기본 모형보다 예측변수를 투입한 최종모형의 -2LL(Log Likelihood) 값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chi^2=67.48$, $p<.001$), 모형의 설명량도 30.9%로 나타나(Nagelkerke $R^2=.309$), 전반적으로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성별을 통제한 후, 집착 유형의 일반군에 비해 집착 피해군은 데이트 폭력의 일반군을 기준으로 데이

트 폭력 피해군으로 분류될 승산비(Odds Ratio: OR)가 3.3배 높았고(OR=3.3, 95% CI=1.0~10.9), 가·피해군으로 분류될 확률(OR)은 10.9배나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R=10.9, 95% CI=2.2~54.6). 또한 집착 가·피해군은 일반군에 비해 데이트 폭력의 가·피해군으로 분류될 확률(OR)이 8.3배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R=8.3, 95% CI=1.7~40.3). 반추적 반응의 경우 자책적 반추반응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데이트 폭력의 일반군을 기준으로 가해(OR=1.3, 95% CI=1.0~1.7) 및 피해(OR=1.2, 95% CI=1.0~1.4), 가·피해군(OR=1.4, 95% CI=1.1~1.7)으로 분류될 승산비(OR)가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집착과 반추적 반응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연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집착과 데이트 폭력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집착의 가해와 피해 경험은 데이트 폭력의 가해 및 피해 경험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군집분석을 통해 집착과 데이트 폭력을 가해와 피해를 모두 고려하여 분류한 후

표 6. 데이트 폭력에 대한 집착 유형과 반추적 반응의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N=205)

참조변인	일반군						가·피해군			
	가해군		피해군		가·피해군		가해군		피해군	
준거변인	B	OR(95% CI)	B	OR(95% CI)	B	OR(95% CI)	B	OR(95% CI)	B	OR(95% CI)
성별	-2.26**	.1(.02-5)	.05	1.0(.5-2.1)	.12	1.1(.4-3.2)	-2.37**	.1(.01-5)	-.07	.9(.3-2.5)
집착 유형(일반군)										
가해군	1.07	2.9(.8-10.1)	.19	1.2(.6-2.6)	.44	1.6(.4-6.7)	.63	1.9(.3-10.9)	-.25	.8(.2-3.3)
피해군	1.45	4.3(.6-30.8)	1.20*	3.3(1.0-10.9)	2.39**	10.9(2.2-54.6)	-.94	.4(.05-3.3)	-1.19	.3(.1-1.2)
가피해군	1.49	4.4(.8-24.9)	.82	2.3(.7-7.2)	2.11**	8.3(1.7-40.3)	-.63	.5(.1-3.8)	-1.29	.2(.1-1.1)
반추적 반응										
자책	.28*	1.3(1.0-1.7)	.19*	1.2(1.0-1.4)	.31**	1.4(1.1-1.7)	-.03	.9(.7-1.2)	-.12	.9(.7-1.1)
속고	-.02	.9(.8-1.2)	.07	1.1(.9-0.2)	-.03	.9(.8-1.2)	-.02	1.0(.8-1.3)	.10	1.1(.9-1.3)
우울	-.09	.9(.8-1.1)	-.02	.9(.8-1.1)	-.01	.9(.8-1.2)	-.09	.9(.7-1.1)	-.02	.9(.8-1.1)

OR=Odds Ratio, 95% CI=95% Confidence Interval.
*p<.05, **p<.01.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집착의 피해군이 데이트 폭력의 일반군을 기준으로 피해군과 가·피해군으로 분류될 확률을 유의하게 높였으며, 집착 가·피해군도 데이트 폭력의 일반군을 기준으로 가·피해군으로 분류될 확률을 유의하게 높였다는 점에서 집착의 피해경험은 데이트 폭력의 피해경험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착의 피해경험은 데이트 폭력의 가해군으로의 분류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못했고, 피해군 및 가·피해군으로 분류될 승산비만 유의하게 높였다는 점에서 집착의 피해경험이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와 공격적 피해자를 유발하는 요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에서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를 순수 피해자와 공격적 피해자로 분류하여 연구한 경우, 공격적 피해자는 데이트 폭력의 가해와 피해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15], 자신에 대한 공격에 대한 방어로서 언어 혹은 신체적 데이트 폭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해볼 때, 연인 간에 나타나는 집착행위는 데이트 폭력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순수한 데이트 폭력 피해자와 공격적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모두 양산한다는 데 심각함이 있었다. 흔히 공격적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공격적 행위로 인해 그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거나, 쌍방과 실과 같은 생각을 갖게 하여 주변인들로 하여금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한 합리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데이트 폭력의 책임 소재에 대한 조사에서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다는 의견이 64.7%, 쌍방에 있다는 의견이 32.6%로 나타나[2], 공격적 피해자에 대한 정당성이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눈에 띄지는 않지만 연락을 끊거나 외롭게 남겨두고, 일상을 통제하려는 집착 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느끼는 정신적 압박감은 상당하지만, 깊은 배려나 강렬한 사랑 등으로 포장하여 제시될 수도 있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저항적으로 임할 경우 공격적 피해자로 분류되어 오히려 데이트 폭력 피해의 정당성을 잃을 수 있어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16년 연인 간 폭력 사건으로 8,376명이 입건되었으며, 이는 데이트 폭력으로 매일 약 23명이 입건

되고 있다는 의미이다[1]. 이처럼 심각한 데이트 폭력의 전조가 되는 집착행위는 그 자체로도 폭력적이고, 실제로 데이트 폭력으로도 이어져 순수 피해자를 만들며, 이러한 폭력에 저항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를 공격적 피해자로 만들기도 한다. 그러므로 연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집착행위는 폭력으로 인식하고 제한해야 할 것이다. 집착행위의 문항들을 살펴보면, 수시로 문자나 위치를 확인하거나, 다른 이성과의 인간관계에 대해 과도한 질투를 하고 집요하게 물으며, 하루의 일과를 세세하게 파악하고 간섭하고자 하는 행위들을 보인다[16]. 이러한 집착은 연인관계에서의 폭력이며, 열정적인 사랑으로 포장되어서도 안 된다. 그동안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연구와 대처가 실제로 발생하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면, 이제는 연인관계에서 보이는 집착적 행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부적절한 관계의 양상을 지도하고 바른 관계를 교육하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집착행동을 연구한 한 선행연구에서는 집착의 원인으로 대상관계이론에 접목하여 분리-개별화로 설명하고 있다[20]. 즉,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고, 자신과 타인이 누구인지를 명료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네, 집착행위는 이러한 분리-개별화가 명료하지 않은 것이다. 연인관계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두 사람의 관계이며, 이 둘은 분리되고 각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가 무너지고 모호해지는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다른 이유로 미화할 수 없는 부적절한 정신건강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집착에 대한 교육 방안으로 대상관계이론에 따른 분리-개별화에 대한 상담이 한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둘째, 연인 간 집착과 같은 행위로 인해 발생한 갈등에 대한 반추사고는 전반적으로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증진시키며, 특히 자책적 반추사고는 데이트 폭력에 있어서 더욱 주의해야 할 변인으로 추정된다. 집착의 피해군과 가·피해군이 일반군에 비해 유의하게 자책적 반추사고가 높았다는 점에서 자책적 반추사고는 집착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책적 반추사고는 데이트 폭력의 일반군을 기준으로 가해 및 피해, 가·피해군으로 분류될 확률을 모두 높이

는 것으로 나타나 데이트 폭력의 유발과 지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책적 반추사고는 집착 가해나 데이트 폭력 가해에 대한 합리화나 면죄부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폭력적 상황에 대한 자책적 반추사고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제로 우리사회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책적 반추사고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현재 데이트 폭력이나 집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피해자는 이미 부적절한 인지적 틀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왜곡된 인지를 갖춘 상황에서 자책적 반추사고가 객관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책적인 반추사고는 오히려 더욱 왜곡된 결과를 낳고, 결과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논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지치료와 같은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폭력과 같은 불법적인 일에 대해 허용하는 대처는 선함이 아니라 범죄를 가중시키고 돕는 것임을 명료하게 주시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집착과 자책적이고 우울한 반추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 김소희와 이명순(2012)은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통해 여대생의 이성관계에서 집착행동이 유의하게 낮아졌으며, 이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보고하였다[21]. 이는 마음챙김기술이 자신의 생각, 감정을 잘 인식하고 수용하며, 현재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인지적 왜곡과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객관적 되새김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의 사고에 대해 비판단적이고, 탈중심적인 관점으로 대하기 때문에 왜곡된 반추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논의하고 있었다. 명상의 과정을 통해 이성관계와 자신의 반추사고에 대해 객관적이고 탈 중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치료적 관점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부적절한 집착과 반추사고에 대한 대안으로 마음챙김명상을 활용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2016년에만 4백명이 넘는 수가 데이트 폭력의 신체적

폭행과 관련된 건으로 입건되는 등 그 정도가 더욱 잔인한 범죄형으로 나타나고 있다[1].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정부도 인식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가칭)' 수립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법무부와 경찰청 등 다양한 연계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스토킹, 데이트 폭력, 성범죄 등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매우 긍정적이 것이며, 그중 드러난 폭력인 데이트 폭력이나 성폭력뿐만 아니라 연인관계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폭력을 유발하는 집착 행위, 스토킹 등에 대한 연구와 대안마련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 연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집착관련 연구는 매우 소수이며, 수면에 드러나지 않은 폭력의 문제이다 보니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미흡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착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를 검증하여 위험도를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피해에 대한 자책적 반추사고의 위험성도 함께 연구하여 제안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연령층에 대하여 확대하여 해석하는데 제한이 있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데이트라는 관계가 20대 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대상을 한정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추후 청소년들의 경우와 직장인들의 집착과 데이트 폭력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둘째, 집착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고, 이에 대한 도구개발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집착에 대한 다면적인 도구개발과 정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트 폭력의 경우 국내의 폭력 정도가 국외에 비해 문화 간 차이가 있고, 성에 따른 차이에 대한 연구 결과도 일관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통제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데이트 폭력과 집착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데이트 폭력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많은 선행연구들이 집중하였다면, 이제는 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과 치료적 프로그램

개발이 뒷받침 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추후에는 데이트 폭력과 집착, 올바른 연인관계에 대한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연인 간에 나타나는 집착과 데이트 폭력의 가해 및 피해 경험을 모두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순수한 데이트 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공격적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집착의 영향과 반추사고의 역할을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2017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2017년 8월 18일,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포스터 발표를 하였음.

참 고 문 헌

[1] 법률신문, 2017년 8월 3일자, “심각성 커지는 ‘데이트 폭력’... 폭행·강간에서 살인까지,”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9737>에서 검색, 2017.

[2] 파이낸셜뉴스, 2017년 8월 13일자. “직장인 97%, 데이트폭력=범죄,” <http://www.fnnews.com/news/201708031002386422>에서 검색, 2017.

[3] 최윤경, 송원영, “여대생의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9권, 제4호, pp.433-446, 2014.

[4] 김은경, 엄애선, “가정폭력 목격이 자녀의 데이트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5권, 제4호, pp.759-777, 2010.

[5] 이명신, 이계민, “부모의 양육방식과 자아분화가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가해와 피해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52권, 제2호, pp.225-271, 2013.

[6] 김시원, 박경,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와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10호, pp.121-141, 2012.

[7] 홍영오, “성인의 데이트 폭력 가해요인,”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2호, pp.321-353, 2017.

[8] 김유정, 서경현, “폭력적 데이트 관계에서의 충동성과 분노 및 분노조절,”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4권, 제2호, pp.383-402, 2009.

[9] 서경현, “이성관계에서 행해지는 데이트 폭력에 관한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4권, 제4호, pp.699-727, 2009.

[10] 우아미, 박준성, 정태연, “집착행동의 구성요인 및 집착행동이 이성 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3권, 제4호, pp.521-546, 2008.

[11] 김은희, “집착, 역기능적 문제해결, 마음챙김, 자살생각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0권, 제4호, pp.1107-1125, 2006.

[12] 양승애, 서경현, “집착 성향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 경계선 성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10호, pp.315-336, 2014.

[13] 장정윤, 강지현, “대학생의 대상관계수준이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집착행동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8권, 제1호, pp.307-327, 2017.

[14] 서경현, “공격적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의 분노 및 분노표현, 정신병적 경향성, 중독성과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4권, 제2호, pp.21-39, 2008.

[15] 서경현, 안귀여루, “데이트 폭력의 공격적 피해여성들의 특성과 연인관계에 대한 개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3권, 제2호, pp.77-96, 2007.

[16] 김소정, 김지혜, 윤세창, “한국판 반추적 반응 척도(K-RR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Vol.29, No.1, pp.1-19, 2010.

[17] 장시운, 관계중독, 자기 및 타인용서가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18] M. A. Straus, S. L. Hamby, S. Boney-McCoy, and D. B. Sugarman,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Vol.17, No.3, pp.283-316, 1996.

- [19] 김정란,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 행동*,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20] 진성규, 이영호, “대상관계수준과 파트너의 행동이 이성교제 중인 대학생의 집착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8권, 제1호, pp.33-53, 2013.
- [21] 김소희, 이영순, “마음챙김명상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MBSR)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이성 관계 집착행동과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제13권, 제5호, pp.2289-2307, 2012.

저 자 소 개

정 구 철(Goo-Churl Jeong)

정회원



- 2002년 2월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문학사)
- 2010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심리측정 · 평가, 학교심리, 상담심리